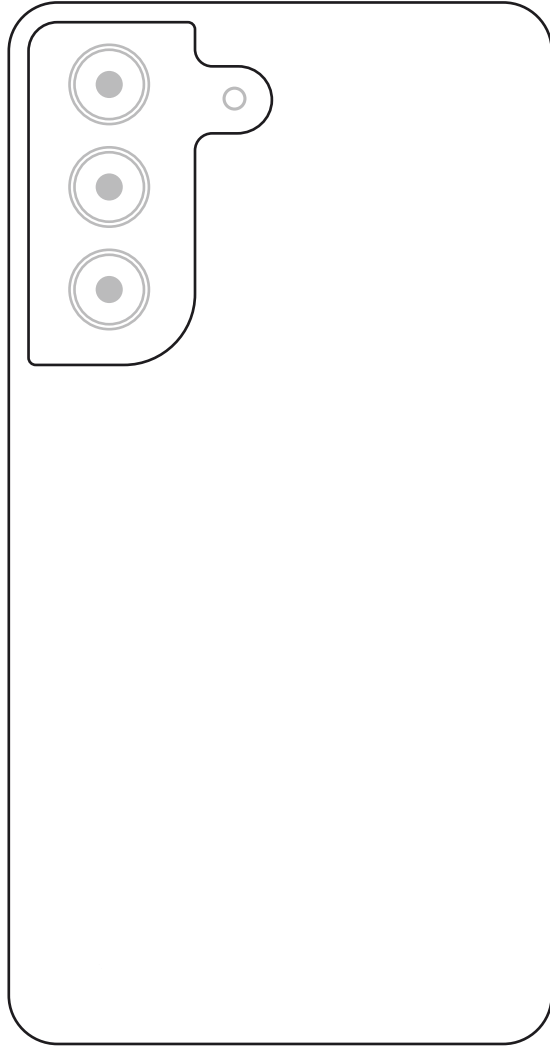


나만의 철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장식하고 싶은가요?
장식하고 싶은 물건을 그리거나 꾸며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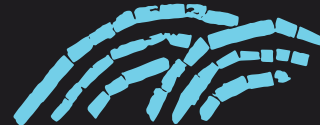


어린이 대상

세 나라, 세 빛깔 - 동아시아의 칠기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세 나라, 세 빛깔 동아시아의 칠기

옷나무에서는 물기 있는 액체가 나와요.
수분을 없애고 가구나 그릇에 바르면
윤이 나는데 이를 옷칠이라고 해요.
옷칠은 예로부터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만든 물건을
칠기라고 해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각각 개성 있는 독특한 칠기를 만들었어요.



질문에 따라 전시를 관람하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칠기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세요.



나전 대모 칠 국화·녕쿨무늬 합

고려시대에는 조개뿐만 아니라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칠한 바다거북의 등껍데기, 금속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칠기를 장식했어요.

이 합과 똑같은 모양의 청자 화장품 합이 있어요. 3층 청자실에서 찾아봐요!



나전 칠 모란·매화·대나무무늬 상자

매화와 대나무를 찾았나요?

매화와 대나무는 조선시대 회화와
공예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늬로,
선비의 지조를 상징해요.



<홍백매도>, 신명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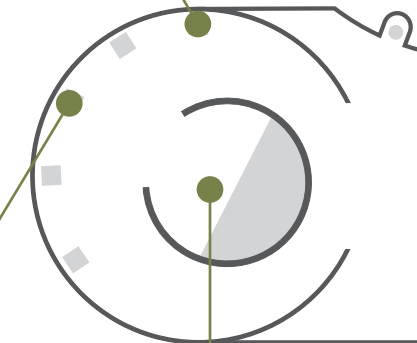
나전 칠 봉황·꽃·새·소나무무늬 빗집

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를 장식할 때 썼던
다양한 용품들을 보관한 빗집이에요.



나전 칠 학·복숭아무늬 소반

조선 후기가 되면 1인용 상인 소반도 화려한 나전으로 장식했어요.
또한 칠기는 가벼워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좋았어요.





조칠 꽃바구니무늬 황실 의식용 도구 (여의)

당시 사람들은 복숭아와 석류 같은 무늬를 다양한 물건에 조각했어요. 이러한 물건을 몸에 지니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묘금 칠 용무늬 악기 (배소)

이 배소는 명·청나라 황실의 음악을 연주하던 관악기에요. 옷칠을 하여 나무의 틀어짐을 방지 하였고, 좋은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조칠 용·봉황무늬 그릇

중국의 칠기는 옷칠을 수십 번 바르고 옷칠 층을 칼로 조각하는 조칠 기법으로 장식했어요. 이 그릇은 여러 가지 색을 각각 두껍게 옷칠한 뒤, 원하는 색이 칠해져 있는 층을 조각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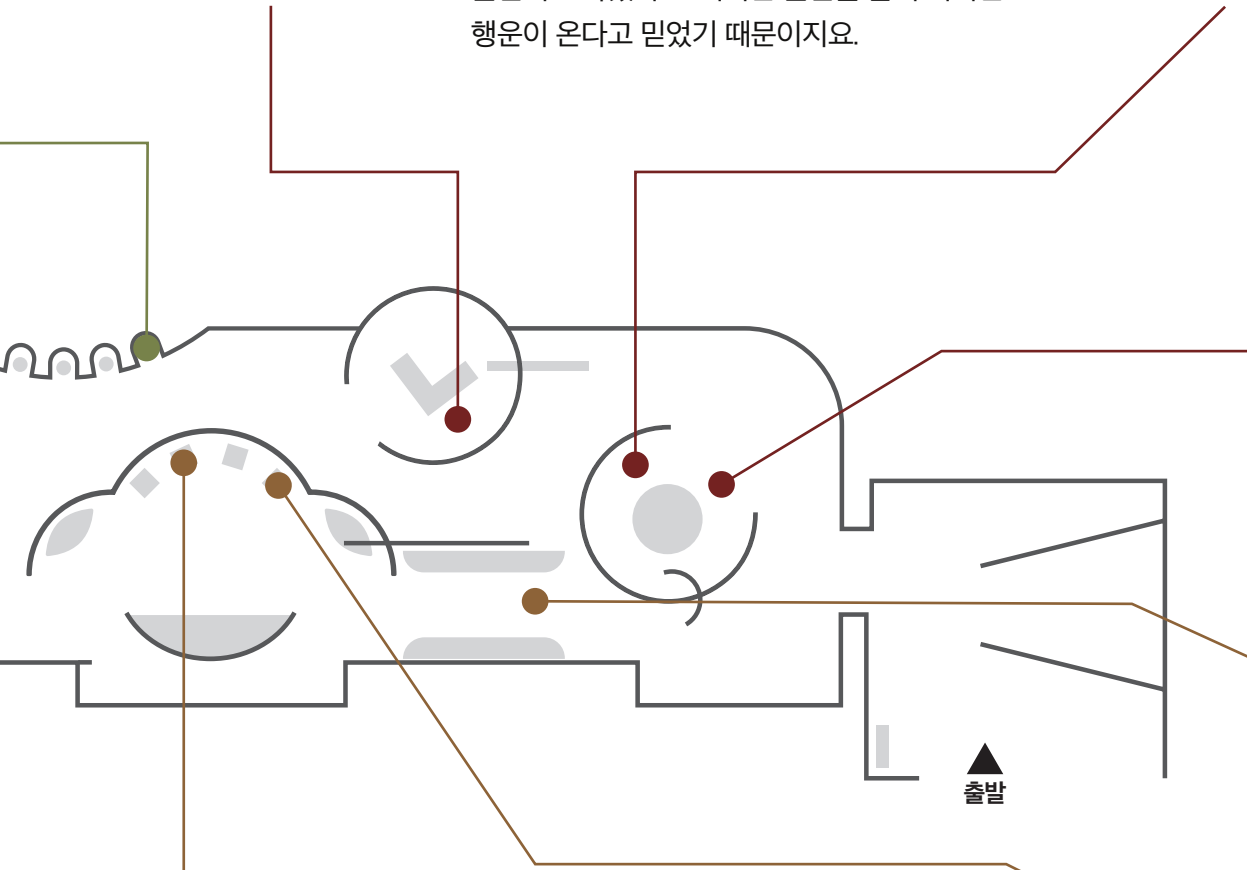
마키에 칠 은어무늬 장신구 통 (인롱)

인롱은 약을 담는 함이면서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었어요.



마키에 칠 국화무늬 빨대야

실내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한 대야예요. 손잡이에는 봄에 피는 벚꽃이, 대야에는 여름에 꽃 피는 오동나무와 가을에 꽃 피는 국화가 그려져 있어요.



마키에 칠 연꽃무늬 경전 상자

마키에는 옷칠 위에 금가루를 뿌리는 일본 칠기 장식 기법이에요.